

# 잘못된 경험이 불러오는 폐지압축기 끼임사고

※ 폐지압축기: 폐지를 투입하여 유압실린더로 작동하는 압축장치를 이용하여 육면체로 압축하는 기계



## 일상적인 일을 하였습니다.

경남 창원 소재 폐기물 재활용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남, 56세)는 폐기물 처리업무를 2년째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4월 A씨는 폐지압축 작업을 하던 중 실린더 작동부에 폐지가 떨어져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여 실린더가 잠시 멈춘 사이에 실린더실에 설치된 방호울을 제거하고, 상체를 집어넣어 에어건으로 불어내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 폐지압축 공정 : 폐기물로 수거된 폐지를 벨트컨베이어로 압축기 상부 호퍼까지 이송하고 호퍼로 투입된 폐지는 압축기 내부 압축실로 떨어진다. 압축실에 폐지 투입이 감지되면 유압 실린더가 작동해 폐지를 육면체로 압축하고 압축된 폐지는 철선에 묶여 배출된다.



위 사진은 이 사고와 무관합니다.



## 동료 작업자도 항상 하던 일을 하였습니다.

늘 그랬듯이 폐지를 수거해 온 동료 근로자 B씨는 집게차로 폐지를 컨베이어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폐지압축기는 B씨가 별다른 조작을 하지 않아도 압축실에 폐지가 쌓이면 자동으로 실린더가 구동되어 압축하게 됩니다.

동료작업자 B씨는 폐지가 정상적으로 투입되어 압축이 잘 되어 가고 있는지만 확인하고 압축 작업이 완료된 후 압축기 전원을 끄기 위해 전원스위치로 향했습니다. 이 때 동료작업자 B씨는 늘 함께 일하던 A씨가 압축기 후면 실린더 룸의 실린더 가이드 빔과 구조물 사이에 끼여 꼼짝하게 숨진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작업자 B씨는 A씨의 죽음이 허망하기도 하고, 일상적인 작업 중에 발생한 동료작업자의 죽음을 보고 '죽은 사람이 자신이 되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찔하기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 잘못된 경험은 사고로 이어집니다.

A씨와 B씨는 항상 하던 대로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까지는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었죠. 항상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끊임없이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통계를 분석해 보면 2010년부터 2019년 사이 폐기물 업체에서 같은 종류의 사고가 총 7건 발생하였습니다.

이물질 제거 등 설비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여 “운전정지”하여야 하고, 전원스위치에는 “정비 작업중/수리중”이라는 표찰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왜 지켜지지 않고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것일까요? A씨 사례와 같이 잘못된 작업습관이 죽음을 부르는 건 아닐까요?

